

# “V12 달성 기원” KS 앞둔 광주… 응원열기 ‘후끈’

31년만 영호남 한국시리즈 성사  
연습경기 전국서 ‘구름관중’ 몰려  
가족·친구·연인 등과 열띤 응원  
“통쾌한 승리로 통합우승 기원”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12번째 한국시리즈 정상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전통 라이벌 삼성 라이온즈와 맞붙는 31년 만의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응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규시즌을 1위로 마친 KIA타이거즈가 21일부터 열리는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에서 LG트윈스를 꺾고 올라온 삼성라이온즈와 맞붙게 됐다.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는 각각 페넌트레이스 우승 횟수 1·2위에 올라있는 강호로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라이벌 구단으로 꼽힌다.

두 팀이 마지막으로 정상 무대에서 겨룬 것은 지난 1993년으로 31년 만의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광주의 응원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IA타이거즈의 자체 연습경기가 열린 지난 19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연습경기임에도 불구하고 KIA선수단의 한국시리즈 대비 마지막 담금질을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 일대에는 구름관중이 운집했다.

경기 시작 2시간여 전부터 경기장 외부의 카페는 만석을 이뤘고, 팀스토어 앞에는 유니폼과 굿즈를 구매하기 위한 대기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와 각자



KIA 타이거즈 주장 나성범과 김도영 선수 등 V12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지난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갖기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맞춰 입은 타이거즈 팬들은 입장권을 손에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일부 팬들은 입장을 기다리면서 집으로 돌아갈 차편을 미리 예매하기도 하는 등 이날 경기에는 전국 곳곳서 팬들의 발길이 이어져 ‘전국구 인기구단’ KIA타이거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전설의 해태왕조’를 목도했던 부모님과 한마음으로 KIA타이거즈의 선전을 응원하는 젊은 팬 등 가족 단위의 관중이 눈길을 끌었다.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을 찾은 박서영(22)씨는 “시즌 시작 전 갑작스레 사령탑이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범호 신임 감독의 지휘에 따라 응

집력을 발휘해 정규시즌을 우승하게 됐다”며 “정규시즌 내내 보여준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큰 변수 없이 5차전 내에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열심히 응원해서 KIA타이거즈 선수단에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을 전했다.

박철(51)씨도 “지난 1993년 삼성과 맞붙었던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탄생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며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떤 선수가 ‘게임체인저’로서 좋은 활약을 펼쳐줄지 기대된다. V12 달성 순간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 연인 등의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은 학생팬들도 있었다. 이들은 힘차게 응원 막대를 두드리고 큰 목소리로 구

호를 내지르는 등 강한 응원 열기로 한국시리즈 출전을 앞둔 선수들에게 힘을 보탤다.

금민기·김명섭(23)씨는 “팀타율 1위를 자랑하는 타선이 타이거즈의 가장 큰 힘이다. 큰 경기에서는 ‘한 방’으로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고참 최형우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규시즌에서 삼성을 상대로 12승4패를 거두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책을 최소화하면 분명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전했다.

연인의 손을 잡고 야구장을 찾은 김재민(19)씨도 “젊은 감독의 ‘형님 리더십’이 올 시즌 타이거즈가 비상하게 된 주요인이다. 타이거즈는 지금껏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단 한번도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 믿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남성 팬들보다도 여성 팬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올 한국 프로야구 1000만 관중 달성에 막중한 역할을 한 여성 팬들도 12번째 한국시리즈 무대 제패를 기원하며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펼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우·이성하(15)양은 “KIA타이거즈가 7년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고 들었다. 최소 4경기에서 5경기 이내로 우승할 것으로 믿는다”며 “30홈런·30도루를 달성한 김도영 선수가 떨지 않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부상 없이 선전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시현(25)씨도 “올시즌 초반부터 부상자가 속출해 고전하면서도, 강력한 타선과 든든한 투수진 등 투타조화를 통해 정규시즌 우승을 이끌었다”며 “정규시즌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면 무조건 우승할 것으로 생각된다. KIA타이거즈의 우승권이 들려오는 순간까지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남민영(20)씨도 “KIA타이거즈가 7년 전 우승 후 정상에 서지 못해 아쉬웠다. 이번 한국시리즈 우승으로써 ‘왕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즌 막판 좋은 타격을 보여준 윤도현 선수의 활약이 특히 기대된다”며 “부상 없이 행복야구를 펼치며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전남경찰, 성범죄 신상 관리 인력 미배치 ‘전국 최다’

### 22곳 경찰서 중 17곳 인력 전무

전남 지역 경찰서 22곳 중 17곳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

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92곳 경찰서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남 지역은 목포 2명·여수 2명·순천 1명·나주 1명·광양 1명으로 총 7명의 전담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는 전담 인력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동부 1명·서부 2명·북부 3명·광산구 2명·남부 1명으로 총 9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됐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뉘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시·도 중 관리 인력 미배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청(22개

경찰서 중 17곳)이었고, 다음으로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순천경찰서(1인당 604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나주경찰서에서는 1명이 24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인력이 줄어든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6350건이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1명에서 2020년 8만939명, 2021년 9만1136명, 2022년 10만1071명, 2023년 10만9367명, 올해 9월 기준 11만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져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lanced

PERON

엑스페론

밸런스 라인